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고교야구 주말리그제로 바뀐다

무등기·봉황기·청룡기·대통령배 등 8개 전국대회 폐지
내년부터 53개팀 8개권역 나눠 토·일·공휴일 리그전

고교야구가 2011년부터 '주말리그'로 전환된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강승규 대한야구협회 회장은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야구 주말리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말리그가 도입되면서 내년부터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고교야구 경기가 진행된다. 이에따라 학기중 평일에 열렸던 무등기를 비롯해 봉황대기·청룡기·황금사자기·대통령배·대붕기·화랑대기·미추홀기 등 언론사 주최의 8개 전국대회는 전면 폐지된다.

전국대회 폐지로 53개팀은 8개 권역으로 나눠 총 372경기를 치르게 된다. 8개 권역은 서울권 동부(7개 고교), 서부(7개), 인천·경기 서부권(6개), 중부권(6개), 전라권(7개), 강원·경기 동부권(6개), 경상권(7개), 경상·제주권(7개)으로 나눠진다.

전라권에는 광주팀 광주일고·동성고·진흥고를 비롯해 전남팀 화순고·효천고 전북팀 군산상고·전주고 등 총 7개 팀이 속해있다.

주말리그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권역별 상위 3개팀 총 24개 팀이 전·후반기 왕중왕전을 벌이게 된다. 3~5월에 열리는 전반기 대회는 인접 학교 위주로 대진이 편성되고, 6~7월에 치러지는 후반기 대회는 인터리그 형태로 진행된다.

전국대회 팀 성적이 기준이 됐던 야구 특기자 선발 방식도 개인별 경기 출전 및 성적(타율·방어율) 등이 기준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고교야구 주말리그는 학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초·중·고교 축구와 올해 대학축구, 대학농구, 고교 아이스하키에 도입됐다.

문화부는 내년 주말리그 예산으로 총 20여억원을 편성해 심판 및 구장 확보와 경기운영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장애인탁구대회 광주서 개막

2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0 광주 세계장애인 탁구 선수권대회 선수단 환영만찬'에서 46개국 500여명의 선수, 임원들이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건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국고교야구 주말리그제 문제 없나

공부하는 선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국내 학원스포츠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 하지만 야구 인프라 확충 등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진행되는 주말리그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야구장 부족 사회인 야구와 충돌 우려
공부도 운동도 다 놓치는 선수 만들수도

◇공부도 운동도 놓칠 수 있다=고교야구 선수들은 내년부터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규수업을 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 학습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초·중학교 때부터 점진적으로 기초 학력을 쌓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주말리그 적용을 받게 된 현 1·2학년 학생들은 공부와 운동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프라 부족도 문제=인프라 부족에 따른 사회인 리그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현재 야구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 야구 대회들은 지역 연고의 프로구단 일정과 조율해 원정경기를 가는 틈을 이용해 진행돼 왔다. 전국체전 등 대회 예선전은 프로구단들의 원정경기가 있는 주중을 이용했다.

현재 전라권 팀들의 경기가 가능한 시설은 정규구장인 무등야구장과 군산월명구장, 보조구장인 여수 진남야구장, 강진베이스볼파크, 대불대 야구장이 있다. 프로야구 팀들의 경기가 겹칠 경우 무등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구장에서 주로 경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사회인리그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주말리그의 도입을 추진한 측에서는 리그도입을 명분으로 지원을 얻어내겠다는 '선도입 후지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확충이 발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말리그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날씨도 리그 성공 변수= 날씨에 민감한 야구의 특성도 고려되야 한다. 축구 주말리그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축구의 경우 경기시간이 야구에 비해 짧고 날씨 영향도 덜 받는다. 야구는 한정된 장소와 조건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우천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날씨는 주말리그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주전급 선수들만 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선수 소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 각 팀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한 경기만을 치르게 된다. 승리를 위해 각 팀의 에이스만 반복해서 마운드에 오르는 상황이 연출돼 선수 저변 확대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이 개인별 성적 기준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팀 승리와 개인 성적을 놓고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스타선수들의 산실로 야구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던 전국대회들도 추억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고교야구 선수들에게 전국대회 우승은 큰 영예이자 목표로 동기부여의 계기가 됐었다. 야구팬들의 관심 속에 대회에서 빛을 발했던 선수들은 프로야구의 기둥으로 성장해 국내 야구 발전의 기틀이 됐다.

그러나 아마야구의 극적인 무대가 됐던 대회들의 폐지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분산돼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G 금사냥 나선 조범현 감독

실전 감각을 찾아라… 소집 첫날부터 이례적 강훈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조범현(50) 감독은 26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소집 후 첫날 훈련을 지켜보면서 "선수단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내달 13일 대만과 첫 경기에 초점을 잘 맞춰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라고 말했다.

야구 대표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 가까이 훈련을 소화했다. 대표팀의 첫날 훈련치고는 무척 강도가 높았다.

러닝과 긴 토스로 공을 주고 받으며 몸을 푼 선수들은 A, B, C 3개조로 나눠 수비훈련과 타격 훈련을 했다. 정근우, 이용규는 특별 타격 훈련까지 치렀고 윤석민, 고창성, 김명성 등 투수들은 불펜 피칭을 하며 감각을 끌어올렸다.

조 감독은 "타자들은 조금만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페이스가 올라오는데 투수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며 "시즌을 마치고 휴식을 취한 선수의 경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니 스트레칭과 러닝 등 훈련을 충분히 하게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감독은 "일단 29일까지 훈련한 뒤 30일 휴식할 계획"이라며 "선수들의 컨디션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훈련 스케줄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 놨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인야구 선수가 주축이라 전력이 베일에 가린 일본 대표팀에 대해 언급했다. 조 감독은 "일본 팀에서는 도쿄가스 소속의 투수 에노키타 다이키와 마미마나부의 구위가 좋다고 한다. 특히 에노키타는 최고 구속 150㎞의 공을 던져 프로에서도 눈독을 들인다고 들었다"라며 "38세의 베테랑 아베 쓰기오도 좋은 투수라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감독은 부상으로 갑자기 빠진 SK 투수 김광현의 대체 선수로 "왼손 투수가 필요하지만 정 어렵다면 오른손 투수를 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창용 3년간 166억

日 언론 "야쿠르트 잔류" 보도

일본프로야구에서 뛰는 임창용(34)이 3년간 12억엔(약 166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 소속팀 야쿠르트 스왈로스에 남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닛칸스포츠는 25일 인터넷판을 통해 "임창용이 파격적인 대형 계약으로 팀에 잔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야쿠르트 구단이 임창용의 재계약금을 포함해 3년간 총액 12억엔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금액 면에서 최종 조정 작업은 남아있지만 임창용도 야쿠르트 잔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창용은 올 시즌 53경기에 등판해 35세이브를 올리며 마무리 투수로 맹활약했다. 2008년 야쿠르트에 입단해 3시즌 동안 총 96세이브를 남겼다. /연합뉴스